

맞춤형 한우 개량으로 경쟁력 높인다

전북대,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 통해 컨설팅 추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전북도의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이하 J-COW 사업)을 통해 한우 농가 개량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 한우 농가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

J-COW 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전북도의 우수한 한우 암소 집단을 선별해 이를 개량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우수한 송아지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한우개량사업 견인을 통해 전북도의 한우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혈통기반의 우수한 암소 선별과 친자확인 검사를 통한 혈통의 검증 그리고 농가의 개량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중 J-COW 컨설팅 사업은 2019년부터 새롭게 시작된 시범사업으로 'J 카우'를 보유한 농가 중 300농가를 선정해 해당 농가에 맞춤형 개량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맞춤형 개량 솔루션이란 전북대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에서 개발한 '지역단위 유전능력 평가 시스템'을 활용하여 농가 맞춤형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농가에서 사육중인 한우와 연결된 모든 개량정보, 농가에서 출하된 모든 한우의 도축성적

을 추적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렇게 수집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암소 유전능력을 평가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씨수소에 의존했던 기존 혈통 기반의 유전능력 평가 방식의 낮은 정확도를 크게 개선했다.

컨설팅 보고서에는 개별 농가의 최근 5년간 출하된 한우 도축성적 추세와 씨수소(정액) 사용 분포를 통한 사육 및 번식 환경 분석과 농가별 유전능력 현황, 유형별(육량, 육질) 유전능력 분류 개체 리스트 등 맞춤형 개량에 필요한 다양한 분석 자료를 농가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추개량협회에서 개량 업무를 총괄했던 김윤식 박사, 전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장 김창엽 박사, 전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시험장장 임석기 박사, 전 축산과학원 한우개량 담당 연구관 이승환 박사, 전북대 동물생명공학과 나종삼 교수, 이학고 교수 등 국내 최고의 한우 전문가들이 컨설팅 팀장으로 참여해 농가들과 직접 만나고 소통하고 있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컨설팅에 대한 농가의 반응은 뜨겁다. 기존 컨설팅들은 주로 사료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전북도의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을 통해 한우 농가 개량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양 및 환경 관리를 중점으로 진행되었던 반면, J-COW 컨설팅은 개량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기 때문이다.

정읍지역의 한 농장주는 "그동안 개량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으나, 체계적으로 분석된 정보가 없어 노하우에만 의지했다"며 "이 보고서는 돈을 주고도 구할 수 없는 자료"라며 이번 컨설팅을 극찬했다.

J-COW 농가 컨설팅 지원 사업은

지난 9월, 300농가에 대한 1차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차 컨설팅을 준비하고 있다.

개량 정보분석을 책임지고 있는 전북대 오재돈 교수는 "2차 컨설팅은 기존 분석 자료와 함께 농장 맞춤형 교배조합을 제공하며 번식, 사양 전문가가 직접 농가를 방문해 사육 현장 전반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기업법제 흐름 파악으로 선진화 '총력'

한국기업법학회, 내일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



(사)한국기업법학회(회장 송양호 전북대 법전문대학원 교수)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25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기념식 및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제학술대회는 '아시아 각국의 기업법제의 흐름과 시사점'을 주제로 열린다. 송양호 전북대 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몽골국립대학교 교수, 베트남 사회과학원 국립법률연구소 경영법학대학장 등이 각 나라의 기업법제 흐름과 시사점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자리를 통해 각국의 기업법제는 체제와는 관계없이 기업의 활성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조화와 통일되어 가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앞서 24일에는 한국기업법학회 창립 30주년을 축하하고 그간 학회 발전에 기여한 전임 회장 등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리셉션 행사도 열린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한국기업법학회 창립 30주년의 역사를 모은 연보를 제작해 헌정하는 의미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송양호 한국기업법학회(전북대 교수)는 "한국기업법학회는 근로시간 단축과 법정 최저임금 인상, 일본의 수출입 규제 및 미중 무역 마찰 등 어려운 경제 현실 속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특별 세미나를 숙명여대 법학연구소와 함께 준비 중에 있다"며 "기업법제가 우리나라 기업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기업 현안을 분석해 기업법제를 선진화하는 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미국 블룸필드대학교 부총장 전주비전대 방문 간담회 가져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와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및 북수확위제 시행으로 긴밀한 글로벌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미국 블룸필드대학교 Dr. Peter Jeong 부총장이 23일 전주비전대학교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서 전주비전대학교 홍순직 총장과 블룸필드대학교 Peter Jeong 부총장은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미국 간호사 자격 취득 ▲협약체결 등 교류협력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진행된 양교의 협약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2014년 블룸필드대와 처음 협약을 체결하여 간호과 학생들의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해왔으며, 기타 교류 등 성공적인 유대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어, 블룸필드대학교 Peter Jeong 부총장은 간호학과와 시뮬레이션센터 및 실습실을 둘러본 후 2017년 블룸필드대학교에서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미국간호사를 꿈꾸는 간호학과 4학년 환경임 학생과 만남의 자리도 가졌다. /장은성 기자

전북과학교육원, '발명어울한마당' 개최

전북과학교육원은 '2019 발명어울한마당'을 오는 11월 2일 과학원 실내의 공간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발명, 미래를 여는 열쇠!'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함께 즐기고 나누며 배우는 발명 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발명 활동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이다.

또한 발명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보다 쉽고 재미있게 발명과 메이커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험마당 △공연마당 △전시마당 △나눔마당 △수업마당 △가족마당 △학부모 특강 등이 있다. 체험마당에서는 3D프린터, 로봇과 코딩의 세계, 나만의 야광 유령 만들기 등 33개 발명체험부스가 운영된다.

전시마당에서는 2019 전국과학경진

대회 출품작 및 수상작을 감상할 수 있으며, 공연마당에서는 드론공연·로봇댄스·과학미술 등이 공연된다.

또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마당과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마당도 마련돼 있다. 이와 함께 팝콘,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 등은 나눔마당에서 즐길 수 있다.

발명체험부스 5개 이상 체험활동을 마친 중·고등학생에게는 창의적 체험활동 확인서가 발급되며, 오는 25일 까지 봉사활동 학생 신청을 접수한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진로교육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추진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4~25일 이틀간 도내 중학교 교장, 교감, 교육지원청 진로교육 담당자 등 440명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역량강화 연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진로탐색기의 중학교 학생들이 올바른 삶의 가치를 제시해주는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학교 관리자의 진로 마인드 형성을 통해 학교 진로교육의 개별화와 다양성을 확

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화하는 입시와 미래 직업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중학교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삶에 대한 고민을 극복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 관리자상을 공유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허클베리핀 진로탐색대 우수사례 발표 ▲학생의 삶에 공감하고 함께 걸어가는 진로교육 ▲중-

고-대학을 연계하는 미래 진로진학교육의 방향 ▲질의응답 등이 이어진다.

강연에는 와이즈멘토 조진표 대표, 한국진로진학정보원의 진동섭 이사, 송덕고 장광재 교사가 강사로 나선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관리자의 진로 마인드 형성을 통해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이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교육 지원으로 학생 중심 진로교육과정 운영을 활성화 하게 될 것"이라며 "변화하는 입시와 교육 환경에 대비한 단위학교 진로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체육회가 도내 최강 클럽팀을 선발하는 동호인리그 왕중왕전을 11월 2~3일 양일간 전주 일원에서 진행한다.

최강 클럽팀이 한자리에

동호인리그 왕중왕전 내달 2~3일 전주서 열려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는 도내 최강 클럽팀(동호인팀)을 선발하는 동호인리그 왕중왕전을 11월 2~3일 양일간 전주 일원에서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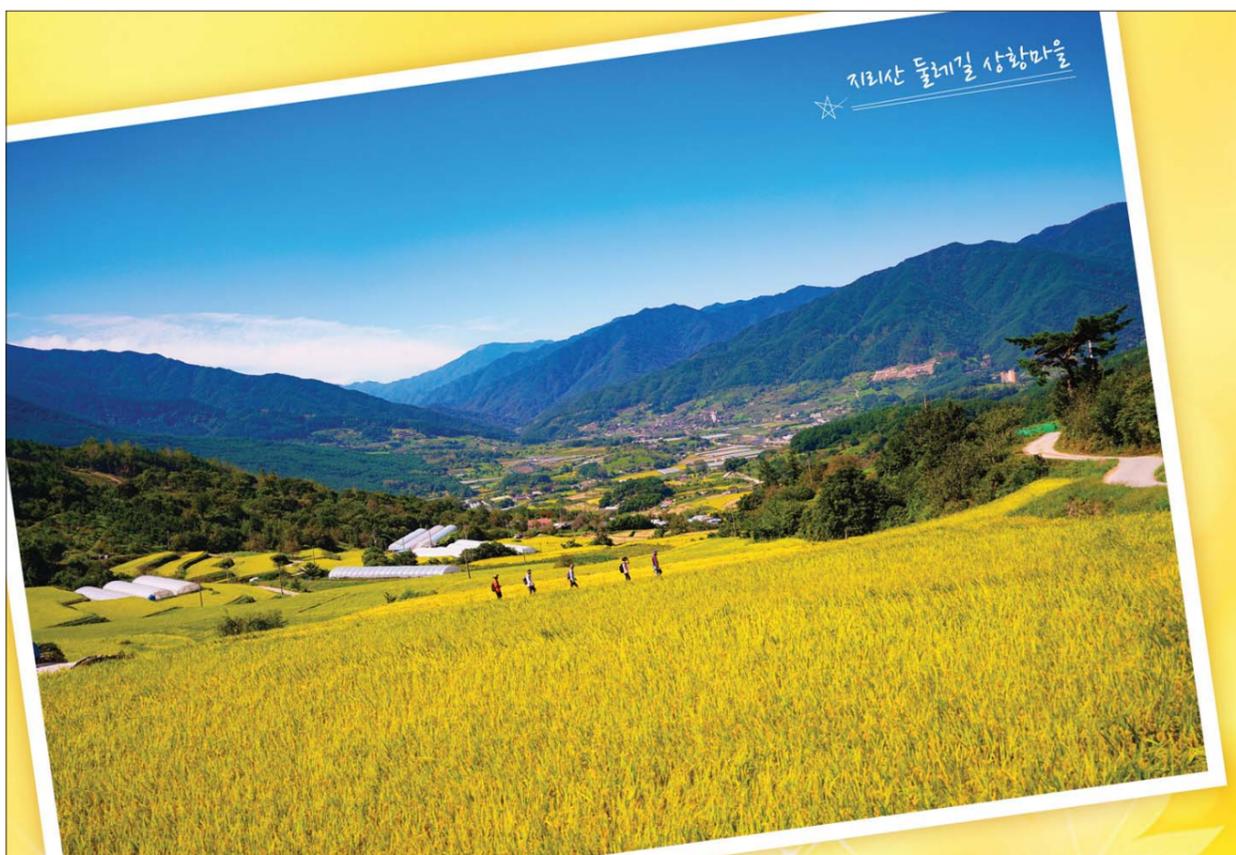
도 체육회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지난 2009년부터 동호인리그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매년 참가 클럽이 늘어나는 등 동호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왕중왕전에서는 게이트볼과 축구, 야구, 족구,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배구, 당구, 볼링 등 10개 종목이 열리며 도내 302개 클럽

에서 4200여 명이 참가해 각 시·군의 명예를 걸고 선의 경쟁을 펼치게 된다. 대회는 종목별로 리그 및 토너먼트로 치러지며 각 종목 상위 입상팀에게는 우승기와 상패 등이 수여된다.

최형원 전북체육회 사무처장은 "이번 대회는 각 시·군 동호인들의 화합의 장으로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건강증진과 체육활동 생활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불어오는 가을바람에
몸을 맡기다 보면,
내가 있는 곳이
시작이 되고, 끝이 된다.

지리산 둘레길,
시작과 끝은 남원입니다.

